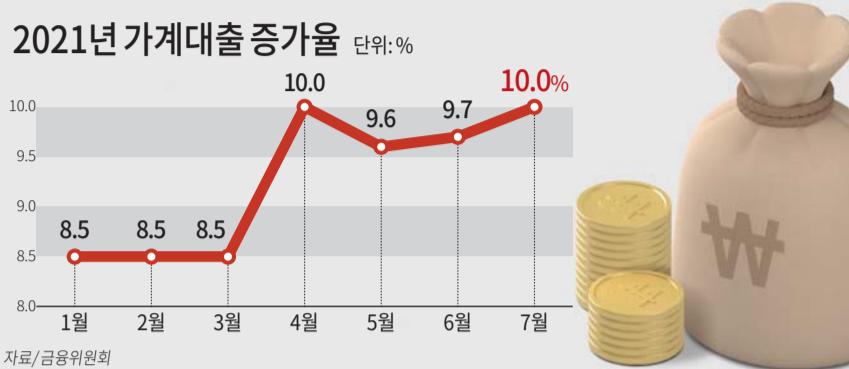




[경제종합]
정비창·GTX 호재
용산 아파트
연일 신고가
03



금리 오르고 대출 뚝 빛투·영끌족 ‘벼랑끝’

대출규제 후폭풍

(上) 금융소비자 이중고

기준금리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빛투, 영끌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맨붕(멘탈붕괴)에 빠졌다.

사실상 저금리 시대 종료가 현실화로 다가왔다. 환경이 바뀌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대출규제를 강화에 나섰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선 이유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달 26일 이후 은행들은 예·적금 상품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0.2~0.3%포인트(p)씩 일괄상향했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도 조만간 예·적금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당국, 가계부채 우려 규제 강화 은행들 예·적금 금리 인상 이어 신용대출 평균금리 1.0%p 상승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 줄이고 신규 주담대 한시적 중단까지

금융권 관계자는 “수신잔고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금조달을 해야 하지만, 올해는 시장의 유동성이 과도한 상황”이라며 “예금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할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 주택담보대출 없어진다

통상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올린 뒤 대출금리도 인상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를 포함한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말 (7월 대출실행 금리반영)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p 상승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연 2.34%에서

3.40%로 1.06%p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은 2.58%에서 3.53%로 0.95%p 올랐다. 하나은행(2.78%→3.63%)과 우리은행(2.47%→3.19%)로 각각 0.85%p, 0.72%p 상승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대였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일제히 3.0%대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대출금리를 상승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4~5%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1월 8.5%를 시작으로 4월 10%, 5월 9.6%, 6월 9.7%, 7월 10% 증가했다.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렸다는 분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2% 대출상품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9월에 오르는 대출금리는 오는 10월 15일 발표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에 반영된다. 지난달 말 대출금리 2.34~3.53%에 기준금리 인상분인 0.25%p 반영되고, 은행권의 가산금리가 더해질 경우 최저금리는 3%가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이중고’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이중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시점부터 우대사항을 없애거나 대출한도를 낮추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9월 중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하나·우리·신한은행은 대출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하고, 국민은행도 9월 중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NH농협은행은 오는 3분기까지 신규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으며,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4면에 계속>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언론중재법 협의체 與 김종민·김용민野 최형두·전주혜 추천
- ▲ 여야, 정기국회 100일 협투 돌입…‘대선 기선을 잡아라’

- /사진 뉴시스

식품·유통가, 드론·로봇 등 IT도입 가속화

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업계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선보여

‘위드코로나’ 시대에 식품·유통업계가 비대면 서비스에 IT기술을 접목시켜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빠르고 정확한 배송부터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까지 갖추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업체들은 로봇을 활용한 근거리 배달 서비스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GS25는 LG사이언스파크 내 위치한 점포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딜리오’가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



GS25의 배달 로봇이 배달 업무를 완료하고 엘리베이터를 스스로 호출한 후 탑승하고 있다.

근무자가 로봇에 상품을 적재하고 고객 정보(연락처)와 목적지(건물 층 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로봇은 카메라모듈을 통해 학습하고 이미지화한 건물 지도를 기반으로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자율 주행을 시작한다.

엘리베이터 이용이 필요한 경우 로봇은 무선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스스로 탑승 후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목적지에 도착한 로봇은 고객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상품이 도착했음을 안내하고 상품 수령 시 입력해야 되는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다.

<4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로 선보였다. 고객이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통해 GS25 상품을 주문하면 점포



수능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

남양유업 M&A, 법정 ‘네탓공방’ 불가피

法, 한앤코 가처분 신청 인용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 불투명

남양유업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이 주식매매계약 거래종결을 놓고 심한 갈등을 벌이면서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이 불투명해졌다. 양측의 치열하고 긴 법정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자가 어느 쪽으로 결론날 것인지, 향수 매수인은 누가 될 것인지 를 놓고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1일 오전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밝혔다. 그러자 이날 오후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의 입장 발표에 관해 계약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앤코 측은 아울

러 홍 회장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앤코에 따르면, 8월 31일이 도과해 계약이 해제됐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앤코 측은 “8월 31일이 거래종결일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루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홍 회장은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제시했다가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선결 조건’으

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계약 주장이라 는 홍 회장 측 입장에 관해서도 “(홍 회장 측이)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다”고 밝혔다.

매도인에 해당하는 홍 회장은 1일 오전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계약상으로 8월 31일까지는 협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매수인은 이보다 일주일도 더 앞선 8월 23일,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압박하는가 하면, 아직 계약이 유효함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위배하고 여러 차례 계약의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힌 바 있다.

<2면에 계속>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동맹 강화 기여 기대”
- ▲ 靑, 자영업자 비대위와 비공개 간담회… ‘코로나 고충’ 수렴



- ▲ 윤석열, 홍준표 ‘사형제’ 언급에 독자 소환… “두테르테식” /사진 뉴시스
- ▲ 與, 오세훈 ‘과잉수사’ 주장에 “무책임한 주장·변명으로 일관”